metro®

메트로 2015년 6월 5일 금요일 제3230호 www.metroseoul.co.kr

메르스 극복할 수 있다

"2m 이내 기침 분비물로 전파"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모은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4일 발표했다.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 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한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한다.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강민규기자 unha@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홍콩서 '한국인 메르스 환자' 기소 위기

메르스 묻는 공항 의료진에 거짓정보 제공 혐의 우리 외교부 '메르스 사태 태스크포스' 구성 가동

중국 출장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에 메르스 공포를 몰고 온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해 홍콩당국이 기소 검토에 들어갔다. 홍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3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코윙만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이날 홍콩의 국회격인 입법회 특별회의에 출석해 "이 남성이 공항을 통과할 때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번 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K씨에 대한 기소 계획을 묻는 펠릭스 청 자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코 국장은 이어 "현재 (홍콩의 법무부격인) 율정사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율정사가) 조건과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인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남성이 향후 홍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씨는 지난달 26일 광둥성 후이저우 출장을 위해 홍콩 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때 공항 의료진은 K씨가 열이 있고 기침을 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다.

K씨는 지난달 28일 광둥성 후이저우 인민병원에 입원했다. 초기에는 39.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이 양호해지는 등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31일 다시 고열 등 증세를 보였지만 다시 상태가 호전되고 식욕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둥성과 홍콩 당국은 현재 K씨가 이용한 비행기와 버스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격리시키고 있다. 또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입법회 특별회의도 메르스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인 메르스 환자 입국으로 비상 걸린 중국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인 메르스 환자 K(44)씨가 입원해 있는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의 인민병원에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광동성 위생당국은 과거 사스 퇴치의 최고 권위자 등을 중심으로 메르스 전담팀을 발족하는 등 메르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한국인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300벌의 방호복과 150개의 방호 눈가리개, 4개의 소독분무기를 지급하고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연합뉴스

코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당국이 홍콩과 서울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에 기내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했다"면서도 홍콩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4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중인 한국인은 K씨, K씨를 만난 4명, K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10명 등 모두 15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확진판정자(K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탄저균 배달사고 51곳으로 늘어

미국 군 연구시설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이 51곳으로 늘어났다. 미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을 잘못 배송 받은 곳이 한국과 미국 내 9개 주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탄저균 이송 지역이 한국, 호주, 캐나다와 미국 내 12개 주 28개 시설로 늘어났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곳은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탄저균 이동 현황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 부장관은 "지난 10년간 탄저균 표본을 전달받은 모든 곳에서 탄저병 발병이 확인됐거나 의심된 사례는 없었다"며 "(잘못 옮겨진) 표본들 때문에 일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한 상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이번 배송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군 연구소의 탄저균 처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30일간의 조사에 들어갔다. 군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모든 탄저균 표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 CNN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본부(펜타곤)로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가 발생했고, 탄저균 표본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반입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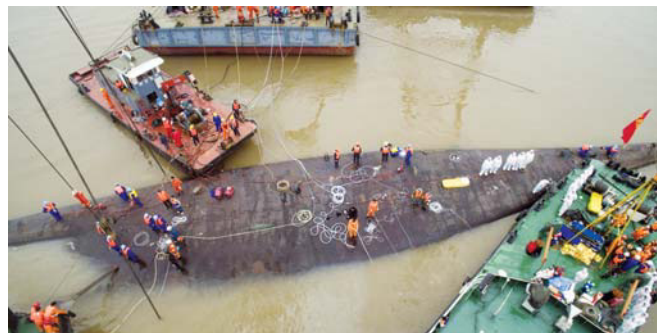
/정윤아기자 yoona1@

불아, 제발 좀 꺼져라 필리핀 케손시티 주택가에서 3일(현지시간) 큰 불이 나 집 100채 정도가 타고 300여 가구 주민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세월호 넘어선 희생자 '444명'… 통곡의 창장

458명 중 단 14명 구조 4일 밤 골든타임 종료

창장(양쯔강)이 통곡의 강으로 변했다. 지난 1일밤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에 타고 있던 458명의 인원 중 지난 2일 오후까지 구조된 14명을 제외하고 생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4일 중국 정부는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구조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생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희생된다면 444명에 달한다. 476명 중 304명(실종자 9명 포함)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는 대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밤에도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의 통곡 소리만이 들렸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이날 CCTV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현장에서는 39구의 시신만이 추가로 수습됐을 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명이다. 사고 선박에는 45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458명에서 456명으로 한차례 정정됐다가 다시 458명으로 정정됐다.

4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창장 유람선 사고 현장 모습. 구조대가 물밖으로 드러난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잠수사들을 투입하고 있다. 현장에는 리커창 총리 등 내각 지도부가 자리를 지키며 구조작업을 독려하고 탑승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에서는 에어포켓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9시께면 사고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72시간이 지난다. 에어포켓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골든타임이 종료되는 시각이다. 해군의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둥옌 부참모관은 "선체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체에 생존자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구조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골든타임 소멸과 함께 생존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이유로 탑승자의 나이대가 거론되고 있다. 탑승자 대부분이 50~80대의 장년층이다. 효도관광을 나선 이들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색작업에 109척의 선박과 1982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했다. 잠수부의 수만 180여명에 달한다. 구조대는 물밖으로 드러난 선박 바닥에 구멍을 뚫어 잠수부들이 선내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중국 지도부의 결단이다. 리커창 총리 등 내각 지도부는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독려하면서 탑승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보도통제로 구조작업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제외한 언론의 취재를 통제해오다 중국 포털의 폭로 이후에야 외신의 현장 접근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메르스에 뚫릴라… 軍 밤새 전전긍긍

질병관리본부 확진결과 4일 자정에 발표
군 4일까지 A원사 접촉자 91명 격리 조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뚫리느냐 마느냐. 4일 군은 이 문제로 밤새 노심초사해야 했다. 오산공군기지 소속 A원사에 대한 확진판정을 질병관리본부가 자정에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원사는 전날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병원과 자택 등에 격리된 인원만 90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 발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메르스의 경우 백신도 나오지 않아 그야말로 군은 초긴장 상태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오후 "현재 군 내 격리된 장병은 91명(민간 의료진 2명 포함)이고 이 가운데 공군 A원사와 관련된 격리자가 75명"이라며 "A원사를 포함해 국군수도병원에 10여명, 국군대전병원에 10여명이 격리조치 돼 있고, A원사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 68여명도 자택 등에서 격리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에 격리된 인원 중에는 A원사가 전날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격리 조치를 받은 6명과 후송에 가담한 2명도 포함됐다.

격리된 인원은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계속 지켜보다 이상이 없으면 2주 후 격리 조치를 풀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A원사는 지난 5월 9일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 후 14~27일 이 병원 7층에 입원해 있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다. 메르스 환자는 이 병원 8층에서 5월 15~17일 입원해 있었다. 28일 퇴원한 A원사는 바로 집으로 향했고 29일 보건소에서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원사는 자가격리 권유를 받아 자택에 머물다 6월 2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3일부터 수도병원내 음압격리실에서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원사는 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하던 중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오산공군기지 의무대에 잠깐 들렀으나 평소 근무하던 곳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A원사에 대한 1차 검사는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보건당국의 안내로 실시했다. 전날 A원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A원사의 메르스 감염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확진을 통해 최종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A원사에 대한 확진 결과는 오늘 자정에 나온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청와대 본관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 청와대 근무자가 4일 청와대 본관 출입문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로 출입자에 대해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한국을 찾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네갈 대통령을 맞은 청와대 본관 입구에는 출입자 대상으로 메르스 관련 체온측정과 함께 손소독 안내문까지 붙었다. /연합뉴스

김무성 외쳐도 문형표 요지부동

金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 실시간 공개하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거듭해서 메르스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메르스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며 "보건당국이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 있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피해 최소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가 괴담꾼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간담회에는 최근 메르스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내 메르스 대책 소속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정부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는 초당적 대응에 협력하라"며 전날과 같이 범정부적 대책과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육군 자주포끼리 부딪혀 부사관 1명 사망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교차로 인근에서 육군 K-55 자주포 차량이 앞서가던 자주포 차량을 들이받아 부사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황교안, 병명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1980년 7월 4일자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됐다. 하지만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검사 전에 급수 등의 최종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국한된다.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만성 담마진은 다름 아닌 두드러기 질환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단 4명만이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지 약 1년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는 의혹의 대상이 돼 왔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야당 대책위 회의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들어보이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열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의 군의관들이 검사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병이다'라고 판정 내려서 군대를 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 후보자의 당시 해명은 이번 날짜 문제로 근본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청문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와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근거를 본인이 제시하지 못하면 병역 면탈"이라고 했다.

또 "의료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후보자 측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의 경우 최종 면제자는 영구보관하지만 1995년 대상자까지는 자료를 폐기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는 본인의 만성 담마진은 1995년에 완치됐다고 답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황 후보자 장남의 병적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와 입영연기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보직변경이나 휴가문제 등이 염려돼 공개를 꺼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정원기자 garden@

"황교안, 정치개혁 능력도 의지도 없다"

참여연대·민변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자질이 없다며 임명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임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다"며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민변은 "황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단초 제공 ▲삼성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인사들과 검사들 불기소 처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 등 황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해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방산납품비리 LIG대표 등 전원 무죄"

대법원이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구(64) LIG넥스원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위사업청에 방산장비를 납품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장 박모(61)씨 등 전·현직 관계자들과 미국 방산장비 중간상(에이전트) 김모(61·여) 대표 등 4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등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있던 평모(사망)씨 지시에 따라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를 일부러 해외 중간거래상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모두 9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방산장비를 구매하면서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상을 통해 간접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LIG넥스원이 방산부품을 수입·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수입가격이나 원가 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간접거래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남길 의도로 부품의 거래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미란기자 actor@

광화문광장 걷는 도인들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갱정유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민족선언 5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갱정유도 도인 등이 50년 전 벌였던 거리행진을 재현하며 광화문광장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法, 이부진-임우재 이혼 가사조사 명령

최근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원고) 사장 측의 가사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재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임우재(피고) 부사장 측은 가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일 일반가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측은 가사조사 명령 당일 가사조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로부터 결혼생활, 갈등상황, 자녀 양육환경, 혼인파탄 사유 등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측을 함께 불러 대면진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혼의 타당성, 혼인파탄 책임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선준기자 rsunju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헌재 "금융기관 직원,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지점장 박모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이 특경가법 5조 4항 1호와 동법 5조 5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5조 5항에선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경제적 파급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병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선 이진성 재판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연미란기자

메르스 공포 확산… 사망자 3명으로 늘어

정보 공개 불가방침에 추측·괴담 더 기승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 보름만인 4일 총 36명으로 늘었다. 그 중 사망자는 3명으로 현재까지 치명률은 6.7%로 파악되고 있다.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시설 격리 중인 사람은 총 1667건이며 62건은 해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당초 1667건의 격리 중에서 자택격리가 1503건, 나머지 102건은 국가지정 격리실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와 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뒤늦게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킬만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채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12일이 지나서야 관계장관들이 모였고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나타났다. 이미 메르스로 3명이 숨졌고 격리 관찰 대상자는 1300명, 자가격리자는 1200명을 넘어선 뒤였다. 첫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보건당국이 내놓은 예방 자료는 "낙타"를 조심하라는 게 다 였다. 이는 여행자들이 중동여행시 듣게되는 말이라 현실과 동떨어진 예방법이라는 조롱거리가 됐다.

이처럼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질병관리본부가 허둥지둥댄 결과다. 최초 검사를 요청했던 18일과 19일, 36시간이라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것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2차감염자가 급증했다. 보건당국이 격리대상을 일일이 찾아내고 본격적으로 접촉을 한 건 지난달 30일이다. 첫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달 20일이니까 열흘을 뒤에야 관리망을 가동했다. 50대 첫 번째 사망자는 이 관리망에서 열을 넘게 벗어나 있었다.

두 번째 무능은 컨트롤 타워없이 대책회의만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된 것이다.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복지부 차관으로 이어졌다. 사태가 확산된 이후인 지난 1일에야 문형표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출장 중이고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과 혼란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보건 당국은 "휴업이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의료진 감염자도 속출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관계자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는 메르스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 실수로 신뢰는 더 멀어졌다. 박 대통령은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애매한 발언과 함께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했다. 메르스에 앞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공세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이 발언 할 당시, 감염자 숫자는 18명인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며 엉뚱한 발언을 하더니 본인은 정작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네번째는 메르스 의료진에 대한 매뉴얼이나 보호장비와 기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메르스관련 전문의료지식을 갖춘 보건당국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일선 의사들에게 지침도 없었고 메르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가이드라인도 매뉴얼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병원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으로 다시 공포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재차 불가입장만을 밝힐 뿐이다. 15분만에 확진할 수 있는 메르스 진단키트도 나와있지만 아직 실험실에서만 사용될 뿐이다.

한편 정부의 메르스 정보 공개 불가방침에 따라 누리꾼, 보건단체 등이 메르스 현황 관련,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ers Map: 메르스 확산지도' 사이트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메르스상황판'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메르스 환자 현황, 위기경보수준 조치상황 등을 비롯해 발병현황, 정부와 보건노조의 대응, 주요언론기사 등이 담긴 상황일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은 "메르스 국내감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려고 메르스상황판을 만들었다"며 "상황판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허락 없이 벽에 그림그리면 '중벌'

경찰, 그라피티 행위 단속 재물손괴·건조물침입죄 적용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벽에 낙서를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의 엄벌 방침은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과 지난달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명동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hong@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

'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섯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리스트 6인에 적용한 서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 오가는 상황에서 김씨까지 소환을 거부하자 사실상 자타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금품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리스트 속 6인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고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금품거래 의혹에 전반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이날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씨를 소환, 4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을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서면질의서 질문이 형식에 그쳐 소환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도 돌파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서면질의 후 소환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서면질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당시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면 질의서는 조사 내용을 알려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라면서 "(리스트 6인을) 소환하기에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금품제공의 연결고리가 있는 홍 의원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실장은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환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를 고리로 친박 3인의 연루 가능성이 큰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연미란기자 actor@

메르스 날벼락 여행업계 초토화

외국인 관광객 7000여명 한국관광 취소
국내 수학여행·체험행사도 줄줄이 연기

메르스 확산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중국, 일본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국내 초·중·고 수학여행 등이 여행일정을 연이어 취소 하는 바람에 관광버스, 면세점, 음식점,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공원 등 여행관련업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6월 중국인의 우리나라 패키지 예약 고객 9000여명 중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은 554명(6%)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베이징지사에서 100여명이 한국여행을 취소했고, 상하이지사에서도 200여명이 취소했다. 지난 2일에는 베이징·청두지사 147명, 상하이지사 107명이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에만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4400명, 기타 아시아지역에서 400명 등 총 4800명이 메르스를 이유로 방한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여파로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은 총 1만 1800여명으로 늘었다.

특히 3일에만 유커 300여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 610만명이 방한, 우리나라 관광·유통산업의 한 축을 형성했던 '유커 특수'도 메르스에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커들의 30%는 꾸준히 한국을 찾고 있기때문에 일시적으로 방문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택하거나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유커들을 위한 예방지침 등을 복지부와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뜩이나 엔저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인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과 백화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여파로 유커 300여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처럼 외국인들의 한국방문 취소는 서울 뿐 아니라 충청, 강원 등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가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야심차게 추진하던 '만리장성 프로젝트'도 메르스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 역시 중국 관광객 100여명이 여행일정을 취소했고, 소규모 관광객들도 예약을 취소했다.

제주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여행사에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메르스로 인한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한국 관광을 예약했던 대만 단체 관광객 1200여명이 예약을 취소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한 메르스 관련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 상황점검반(반장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으로 격상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모든 부문의 영향을 부처간 협조 아래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GS칼텍스, 국내 계열사 매출 7천억원

GS칼텍스가 지난 한해 국내 계열회사와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이 총 706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국내 계열사 거래 매출액인 3581억4600만원에서 97% 상당 증가한 금액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특히 GS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켐텍인터내셔날, 지에스아이티엠 등과의 상품·용역 거래 비용이 급증했다.

켐텍인터내셔날은 특히 주목할 만한 계열사다. 2013년 GS칼텍스와 켐텍인터내셔날의 거래 금액은 8300만원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거래 규모는 2억900만원으로 뛰었다.

켐텍인터내셔날의 최대주주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아들인 허서홍씨로 전체 지분의 50%을 보유하고 있다. 허준홍 GS칼텍스 상무가 지분의 10%를 갖고 있어 그 뒤를 잇는다. 그밖에 허성연씨, 허성한씨가 각각 작년 12월 10%, 7% 상당의 지분을 취득했다. GS그룹 4세들이 전체 지분의 77%를 갖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다. 켐텍인터내셔날은 최근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3월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에스아이티엠과 298억원 규모의 상품·용역을 거래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지에스아이티엠의 최대주주 역시 허서홍씨로 지분 22.7%를 보유하고 있다. 허경수 코스모화학 회장의 아들인 허선홍씨가 지에스아이티엠의 지분 12.7%를 갖고 있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GS칼텍스와 지에스아이티엠은 2013년 8300만원 상당의 상품용역을 거래했다. GS칼텍스가 공시대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2년 만에 거래규모가 약 360배 상당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켐텍인터내셔날, 지에이아이티엠 등 계열사와의 거래는 매해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해 3월 GS칼텍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BBB-로 강등하고, 12월에는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지난 2월 GS칼텍스 신용등급을 기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떨어뜨렸다. /양소리기자 10sound@

유통업계, 메르스 차단 총력

적외선카메라에 마스크 전 매장 방역작업 실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백화점·마트·식품·화장품·호텔 등 유통업계는 소비자와 접촉이 많고 밀접한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인 만큼 행여나 메르스로 인한 불상사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장과 직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행사를 미루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CJ그룹은 CJ제일제당·CJ E&M·CJ대한통운·CJ오쇼핑·CGV 등 주요 계열사 사내 게시판에 메르스 증상에 대한 정보를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출장·여행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CJ는 CGV와 CJ푸드빌 등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매장에서는 이번 주 내에 스태프용 마스크를 배포하고 주말부터 모든 직원이 착용하고 근무하기로 했다. 또 손 소독기·세정제·체온계 등을 확대 비치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이상황은 없지만 메르스를 우려하는 소비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CGV와 CJ푸드빌 등은 직원들의 마스크 작용을 의무화 했다"며

4일 오전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직원들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마스크가 확보되는대로 착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지역 내 6개 매장의 시식행사를 잠정 중단했다. 또 전국 124개점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 1024개 강좌도 휴강했다.

AK플라자는 이번 주말부터 매장 오픈 전 메르스 병역작업을 실시한다. 메르스 전문 방역을 위해 현재 보건소와 상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전 매장에 오픈 전 방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에 출근하는 전직원에게 체온 체크를 시작했다.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지 않고는 회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 업체들은 예정됐던 행사를 미루고 있다.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은 한식 프로모션 차원에서 최근 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호텔 셰프 4명에게 메르스 잠복기를 감안, 이달 동안 출근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1일부터 적외선열감지기를 고객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한데 이어 이날부터 리조트 전역에 추가 확대 설치하는 등 메르스 사전차단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불안감의 직격탄은 유통업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카드사,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풀가동

성향·소비패턴 분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앞둔 황성한(29)씨는 데이트 전 휴대폰을 먼저 체크한다. 카드사에서 데이트 장소 주변에 있는 커피숍 정보와 음식점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황씨는 카드사에서 안내해주는 맛집과 다양한 혜택 등을 통해 성공적인 데이트를 준비할 수 있었다.

/각 사 제공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자사가 가진 고객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에 활로를 찾고 있다.

고객 성향과 소비패턴을 분석해 각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신규고객을 유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구축하고, 금융사가 특정인 식별 정보를 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빗장을 열어줌에 따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강화·복지 등 활용

빅데이터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영역 확장을 하고 있는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경영'을 선포하며 2200만명 회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모델 '코드 나인'(Code 9)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LG전자와 홈플러스, 11번가 등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사와 손잡고 빅데이터 기반 CLO(Card Linked Offer) 서비스인 '샐리(Sally)'도 선보였다.

'샐리(Sally)'란 별도의 할인쿠폰이 없이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앞서 신한카드는 서울시와 함께 복지정책 수립 차원에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정보와 복지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이용해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을 위한 분석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소비패턴 활용…"필요 정보 제공"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기도 한다.

최근 BC카드는 고객 특성과 사회현상을 분석해 적합한 마케팅 방법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프로파일링 시스템(AIPS·아입스)' 개발에 착수했다.

아입스는 BC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사회현상 전반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예측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똑같은 이벤트나 동일한 혜택보다 대상 고객 맞춤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삼성카드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CLO서비스, '삼성카드 LINK'를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내놨다.

'CLO 서비스'란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회원에게 적합한 혜택을 매칭해 주고, 회원이 맘에 드는 혜택을 연결해 두면 별도의 쿠폰 없이도 할인이나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우리은행, 코코본드 5억 달러 발행

글로벌 최저금리

우리은행은 4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본자본(Tier1) 코코본드 5억 달러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코코본드는 바젤Ⅲ 기준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으로,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원금이 전액 상각되는 구조다.

발행조건은 30년 만기로 5년 이후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금리는 미 국고채(5년) 금리에 3.3% 가산한 연 5.0%다.

이는 70개 기관에서 발행금액의 3배까지 몰려 바젤Ⅲ 시행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된 금융기관의 달러 Tier1 코코본드 가운데 글로벌 최저 금리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같은 날 유럽의 대형은행인 산탄데르은행이 파운드화 코코본드를 연 7.375%에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발행 금리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국내 최초로 Tier2 코코본드 10억 달러 발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Tier1 발행 성공으로 국내은행들의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원화·외화 시장에서의 Tier1 코코본드 발행으로 BIS 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약 0.55%p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다지는 등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외환은행, 7일까지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참가 외환은행은 4일 해외여행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5~7일 사흘 동안 경기도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 6,7,8홀)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기간 중 외환은행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은 환전 요령 등 다양하고 알찬 금융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외환은행 제공

수출입銀, 2억 달러 규모 딤섬본드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12억5000만 위안(미화 2억 달러 상당) 규모의 3년 만기 딤섬본드발행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딤섬본드의 발행금리는 3.60%, 미달러화 스와프(Swap) 후 금리는 Libor + 0.51%다.

이는 미달러화 공모 발행시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수은 측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1월 22억 5000만 달러의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데 이어, 이종통화 발행을 통한 차입시장 다변화를 위해 위안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최근 발행이 없었던 비중국계 발행자로서의 차별성을 적극 내세워 채권의 표면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 이후 한국계 기관의 딤섬본드 시장 재진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아란기자

1분기 해외서 3조5000억 긁었다

카드사용액 '설 연휴·유가 하락'에 최대치 경신

올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통계에 따르면 올 1~3월 내국인이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액은 모두 32억1000만 달러(약 3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0.5%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인 작년 3분기의 32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다.

한은은 설 연휴와 유가하락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올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470만 명으로 지난해 4분기의 415만 명보다 13.1% 늘었다.

유학과 어학연수를 포함한 해외여행지급 총액은 59억9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53.7%에 달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사용카드 종류별 사용비중은 신용카드가 70.9%, 직불카드가 5.1%다.

한편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내 카드 사용액은 감소했다. 지난 1~3월 방한한 외국인은 321만명으로 작년 4분기 대비 9.0% 줄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 수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143만 명)도 전분기 대비 1.2%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27억6000만달러(약 3조원)로 전분기 대비 13.0% 감소했다. /백아란기자

여름 휴가철 앞둔 건설사, 분양 서두른다

시장 호황에 마감률 상승
이달 신규분양 5만여가구
공급량 많아 미분양 우려

부동산 시장 호조 속에 건설사들이 앞다퉈 여름 비수기 이전에 분양을 실시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총 67곳 3만9824가구였다. 이는 2008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대 물량이다.

6월에는 이보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임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5만1798가구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1만7209가구) 대비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5~6월에 물량이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 분양한 단지가 조기에 완판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7~8월 비수기 전 호황일 때 앞당겨 분양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난 1분기 수도권지역의 1순위 마감률은 28%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1%인트 가량 상승한 것.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순위내 마감행렬은 줄잇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한 부산 '광안더샵'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379대 1(최고 1106대 1)을 기록해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대림산업이 올해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촌' 역시 501가구 모집에 서울 1순위자만 5354명이 몰리며 평균 10.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대우건설) ▲킨텍스 꿈에그린(한화건설) ▲e편한세상 신촌(대림산업) ▲시흥배곧 한라비발디(한라) 등이 순위내에 청약이 마감됐다.

한 분양 관계자는 "올 초부터 분양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되면서 여름 비수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5월의 경우 연휴 등으로 미뤄진 물량까지 합세하면 최근 몇 년간 평균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급과다에 따른 미분양 속출을 우려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804가구) 감소한 2만8093가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 1월의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 물량은 3394가구에 달했고 이후 2월(3172가구), 3월(4916가구)에도 전월보다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4개월 만에 미분양이 증가하기도 했다. 4월의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대비 2.2%(315가구) 증가한 1만4510가구였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5~6월 전국 분양 물량 중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 미분양 물량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별로도 교통여건과 중소형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약 전 분양 단지의 교통여건과 지역개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5~6월에 대거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말 개장한 'e편한세상 보령'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 이 견본주택은 개장 3일 만에 1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대림산업 제공

한화건설 '킨텍스 꿈에그린' 1순위 마감 한화건설이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 킨텍스 부지에 분양한 주거복합단지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가 당해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일 '킨텍스 꿈에그린' 아파트 1022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2904명이 접수해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킨텍스 꿈에그린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4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0조8505억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공공·민간 건설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

대한건설협회는 4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0조85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9조1150억원과 비교해 19.0% 증가한 수준이다.

수주액의 증가는 민간부문이 이끌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 동월(5조9007억)보다 25.6% 늘어난 7조4087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주택과 재건축시장 호황으로 건축부문이 5억282억원에서 7조888억원으로 41.0% 증가한 게 컸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4418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2143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토목이 2조4552억원에서 2조5416억원으로 3.5%, 건축이 7591억원에서 9002억원으로 18.6% 늘었다. 다만 올 들어 4월까지 공공부문 누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보다 9.0% 감소, 공공부문의 수주 가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3월에 이어 4월도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민간 건축 수주가 활발했다"며 "하지만 KDI가 공공발주의 부진으로 지난달 건설투자 전망치를 연초보다 하향 조정한 만큼,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용인 아파트 매매값 67% 저점 찍고 상승

올 1만5000가구 분양
지난해보다 7배 많아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용인시 아파트 매매값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발표하는 아파트가격종합지수 코아피(KOAPI)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3년 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코아피 지수는 248.85로 저점(2013년 8월)보다 11포인트 이상 올랐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용인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5월 말 기준 용인지역 아파트 19만3249가구의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67.3%인 13만241가구가 2013년 8월 대비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오른 아파트의 40.2%(5만2298가구)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인의 경우 강남, 분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매매전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용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경기도에서 수원(531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995건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970만원으로 서울 강남3구(1590만원), 판교신도시(1631만원), 분당신도시(1095만원)의 전세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296가구에 달하던 용인시 미분양 가구는 지난 3월 3271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호조 속에 건설사들도 잇따라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다.

올해 용인의 아파트 분양물량(예정물량 포함)은 1만5418가구다. 이는 지난해(2141가구)보다 7배 넘는 물량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강남, 분당보다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용인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세권·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삼성물산, 7600억 호주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삼성물산이 호주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삼성물산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SW, New South Wales) 주정부가 발주한 시드니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프로젝트의 1단계 1B구간 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웨스트커넥스 프로젝트는 시드니 도심과 남서부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다. 이 중 1단계 1B구간은 지하차도를 포함해 총 연장 5.5km 왕복 6차선 규모다.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호주의 유력 건설사인 레이튼(Leighton), 존 홀랜드(John Holland)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따냈다. 수주한 구간의 사업규모는 27억 호주달러. 삼성물산의 공사 수주물량은 전체 33%인 9억 호주달러(원화 7600억원)다.

삼성물산이 해외 건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호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유력업체와 파트너십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58억 달러 규모의 로이힐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호주 시장에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업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선옥기자

美 벌처펀드, 삼성물산 합병에 딴지

불공정 조건이라며 제동 걸어
삼성물산 "과정상 문제 없다"
전문가 "시세차익 노린 전략"

미국계 벌처펀드 엘리엇 매지니먼트가 삼성물산 지분을 7.12%로 늘리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지난 3일 주당 6만35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 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아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안을 둘러싸고 삼성과 엘리엇 측의 지분 확보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했다.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6500원(10.32%) 오른 6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엘리엇이 합병과정에서 '노이즈'(잡음)를 일으켜 주가를 높인 뒤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현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15만6493원과 5만7234원을 웃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된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평균 취득 단가(6만3500원)의 차이는 6000원이다. 이에 따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지분가치는 약 667억원 증가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식을 시킴으로써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헤지펀드 측은 오늘 주가 상승만으로도 큰 폭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은 32.11%에 달한다. 외국인·기관 주주들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비롯한 세력이 합병 반대에 필요한 지분을 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연구원은 "지분을 7% 확보했다고 해서 합병 결의를 무산시킬 가능성은 떨어지며 삼성그룹 지분이(19%대로) 낮다고 하지만 삼성 측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합병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작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헤지펀드의 속성상 경영 참여가 실제 목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합의를 하든지 배당을 얻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 보도자료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번 합병 추진 배경은 회사의 미래가치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면서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시장이 현재 평가한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합병을 발표할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였다.

삼성물산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했다. 100만주 미만 거래량이 이어지다가 지난달 26일 거래량이 948만주 규모로 뛰었다. 이날 종가가 6만3500원이었다. 27일에는 1241만주로 거래량이 더 늘었고 이후 꾸준히 100만주 이상으로 거래량이 유지됐다. 3일 삼성물산의 거래량은 417만여주였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매수량 339만여주는 이날 거래량의 81.2%를 차지한다. 이후 4일 장 시작 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지분 보유 사실이 공시됐고, 삼성물산은 이날 장 내내 급등세를 유지하다 10.32% 상승한 6만9500원에 마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기존에 삼성물산 주식을 약 773만주(4.95%) 보유하고 있었고, 3일 추가로 339만주(2.17%)를 매수했다.

1977년 설립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엘리엇어소시에이츠와 엘리엇인터내셔널 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운용 자산은 260억 달러(약 29조 원)에 달한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수주 가뭄에 조선株 '먹구름'

올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 全無
저수익 국면·시추선 수요 부진

저유가 여파로 오랜 몸살을 앓아온 조선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발주 소식에 동반 상승했으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주 가뭄'을 해소할 만한 실적은 아니라는 시각이 업계에 팽배한 탓이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 거래일 대비 2.15%(350원) 내린 1만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 들어서는 14.93% 하락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만 3만4900원에서 1만8650원으로 46.56% 고꾸라졌다. 이 기간 시가총액도 6조6795억원에서 3조569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사로부터 1만963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수주가격은 컨테이너선 척당 1억6000만 달러로 계약 총액은 약 18억 달러(약 1조98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3월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2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계약(총 약 6억2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발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업계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4.49%), 삼성중공업(0.85%), 현대중공업(0.40%) 등 조선주는 일제히 반등했다. 다만 해양플랜트 수주 없이는 단기 실적 회복이 힘들다는 지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해양플랜트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와 같은 해양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올 들어 이들 조선사의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은 전무하다. 엑손·모빌·걸프 등 세계 오일 메이저들이 유가 하락에 따라 해양플랜트 발주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올해 의미 있는 수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기에 2013년 저가 수주한 상선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저수익성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추선(드릴십) 수요 부진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bobae@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사로부터 2조원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을 따냈다. 이 소식에 소폭 반등한 주가는 '이번 수주가 실적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 등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메르스 확산 외출 자제… 홈쇼핑株 들썩

| 마켓인사이트 |

GS·현대·NS 등 매출 상승 바람
백수오 악재 딛고 투자심리 개선

현대홈쇼핑 클럽노블레스 방송.

백수오 사태에 덜미가 잡혔던 '홈쇼핑주'가 메르스 확산 여파로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잇따라 휴교·휴원을 결정한 가운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홈쇼핑 시청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홈쇼핑주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

4일 주식시장에서 NS쇼핑의 주가는 전일대비 1.32% 오른 23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상승세를 펼쳤던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메르스로 홈쇼핑에 유리한 영업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홈쇼핑업체의 영업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의 매출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신규 진출한 렌탈케어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자회사인 현대렌탈케어 역시 정수기 사업을 필두로 6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17일부터 현대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 방송에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2분기 역시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바일 부문에 대한 비용통제 여부에 따라 영업이익 변동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9.7배, 순현금을 감안한 실질 PER은 4.6배로 대단히 저평가된 상태"라며 "신규 진출한 렌탈케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면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GS홈쇼핑은 소비부진 여파로 올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으나 하반기부터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GS홈쇼핑은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잠정영업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276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1% 감소한 29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23.8% 감소한 260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홍성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홈쇼핑주는 올해 하반기께나 모바일쇼핑 고성장에 힘입어 긍정적인 실적을 올릴 것"이라며 GS홈쇼핑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모바일쇼핑 부문은 여전히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취급고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104% 성장한 모바일쇼핑의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취급고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는 하반기부터 외형성장에 더해 마진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렬 연구원은 "올해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돋보일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 배터리 방전?… 전지사업 적자 눈덩이

삼성SDI 중·대형전지부문 1분기 900억원 손실 전망 경쟁력·수익성 확보 '고심'

삼성이 '배터리 딜레마'에 빠졌다. 차세대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점찍은 2차전지 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다. 특히 중·대형 전지 수익률 제고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전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SDI의 중·대형 전지 부문의 적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SDI가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 전시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삼성SDI제공

올해 1분기 삼성SDI는 영업이익 6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재사업은 840억원의 흑자를, 전지사업은 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소형전지 부문에서 120여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중·대형전지 부문에서는 900억원 가까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대형전지는 삼성 SDI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이 부문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당분간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적자 폭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 SDI가 중·대형 전지사업에서 3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품 가격과 경쟁력이 삼성 SDI의 고민이다. 원가 개선 속도가 더디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 SDI는 BMW와 크라이슬러 등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물량 공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저유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삼성 SDI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LG화학 등 경쟁업체에 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삼성 SDI는 점유율(출하량 기준) 4.5%로 7위를 기록했다. 파나소닉(30.5%)과 LG화학(10.8%)은 각각 1, 4위에 올랐다.

삼성 SDI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중·대형 배터리 부문의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회사도 해법 찾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엘리엇 제동… 이재용 삼성 승계 '발목'

삼성물산 주식 매수 3대주주 주주 이익 반한다며 합병 반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핵심 고리로 평가 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등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발목을 잡고 나섰기 때문이다.

엘리엇 어소시어츠(Elliott Associates, L.P.)는 삼성물산 보유 지분이 2일 이전까지 4.95%(773만2779주)였으나 3일 장내 매수로 2.17%(339만3148주)를 추가로 사 보유 지분이 7.12%(1112만5927주)로 늘었다고 4일 공시했다.

문제는 엘리엇이 이번 주식 매수로 인해 국민연금(9.79%), 삼성SDI(7.39%)에 이어 단번에 3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 했을 뿐 아니라 합병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아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선언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역시 급물살을 탈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엘리엇이 공격적인 자세로 반기를 든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7월로 예정된 삼성물산 이사회에서 삼성그룹과 엘리엇의 지분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19%에 그치는 상황에서 엘리엇이 32.11%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기관 주주들과 손잡을 경우 합병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그룹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건설과 중공업 분야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전자 홍보 모델이 4일 서울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모션싱크' 출시 2년… 프리미엄시장 주도

올 2분기 월 7000대 판매

삼성전자는 청소기 '모션싱크'가 출시 2주년을 맞아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3년 6월 선보인 '모션싱크'는 올해 2분기 들어 월 7000대 이상 판매되며 출시 1주년 때보다 약 2000대 이상 더 판매됐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량은 2014년 동기간 대비 약 65% 증가했다.

'모션싱크'는 국내 프리미엄 청소기(40만원 이상) 시장을 약 5배 이상 성장시켰고, 60%(삼성 자체 집계 기준)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갖춰 회전과 이동성이 뛰어나다. 업그레이드 된 사이클론포스 멀티 기술로 흡입력과 지속성도 향상시켰다.

또 7단계 청정 클린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99.999% 차단해 독일 인증 기관(SLG)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KAF)·영국알레르기협회(BAF) 등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모션싱크' 출시 2주년을 기념해 이달말까지 특별한 가격에 '모션싱크'를 구매할 수 있는 '히트 모델 특별전'을 연다. 아울러 10일부터 3주간 삼전전자 가전 페이스북에서 퀴즈 이벤트를 벌인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션싱크 콤팩트'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가 출시 이후 점점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다양한 기능과 사용성이 강화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LG전자 "지구 청소해요"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LG전자 임직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글로벌 환경 보호의 날'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매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보호 캠페인과 연계해 글로벌 환경 보호의 날 행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LG전자 임직원들은 4일(현지시간)부터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멕시코, 필리핀, 오스트리아에서 자원절약·환경보호 캠페인 ▲폴란드, 러시아에서 유적지·공원, 하천 등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고아, 장애아 등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과 식목행사 등을 연다.

LG전자 노동조합은 5일 청주, 구미, 창원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지역 하천 환경 정화 활동, 식목행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달 초부터 LG전자는 한 달간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을 무상 대여해 유엔환경계획의 환경보호 캠페인을 돕는다. 전광판에 약 30초 분량의 친환경 메시지 캠페인 영상을 매일 60여 회씩 상영한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글로벌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속 협업해 준 LG전자와 참여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은정기자 eunj71@

해외실적 적자… 황창규 경영 리더십 도마

작년 설립한 해외법인 10곳 중 7곳 순손실 기록
"구조조정·부동산사업 등 단기실적 집착" 지적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취임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사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전임 최고경영자(CEO)가 벌려놓은 사업을 리모델링해 통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하지만 해외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수주 경쟁력이 미흡하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후진국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쌓은 경력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지난해 KT가 설립했던 10개의 해외 법인 중 7곳이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손실액은 438억5600만원이다. 손실액의 대부분은 일본법인(Korea Telecom Japan Co Ltd)과 르완다 합작사(olleh Rwanda Networks Ltd)에서 발생했다.

두 법인이 각각 227억6900만원, 189억8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해

외사업의 부실함을 여지없이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설립한 르완다 합작사는 황 회장이 작년 초 취임 직후 해외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설립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적자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당기 순손실은 68억8400만원을 기록했다.

해외법인의 손익도 들쭉날쭉하다. 2013년에는 네덜란드 법인(KT Dutch B.V), 중국 법인(Korea Telecom China Co Ltd), 르완다 합작사 등 4개 계열사만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황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이후 네덜란드와 중국 법인은 흑자 전환을 했고 2013년에 흑자였던 다른 법인들이 적자 전환을 했다. 네덜란드 법인, 중국 법인, 르완다 합작사 등 세 법인은 각각 41억3100만원, 11억800만원, 9430만원의 손실을 봤다.

황 회장은 취임 때 부터 이석채 전 회장이 만든 비대한 KT그룹의 조직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줄곧 경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본업인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사업추진실을 CEO 직속으로 분리 독립시키면서 직접 해외 사업을 관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2년차에 접어든 황 회장이 추진한 그간의 사업 현황을 보면 그가 강조했던 경영 방침들은 단기적으로 적자를 면하려고 감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적자 투성이인 해외실적과 함께 국내사업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황 회장은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세이브 한것 이외에는 국내외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력구조조정과 부동산사업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이 한치 앞만 보는 것 같아 국내 통신산업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고 전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KT '쥐어짜기' 위기극복 극과 극 SKT '고통분담'

KT
8300명 명예퇴직 단행
퇴직 비용 1조200억 허비

SKT
월급 줄이며 내부 결속 다져
착실히 이통시장 변화 대비

KT(회장 황창규)가 지난해 명예퇴직을 통해 경영위기를 타파했다면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내부 결속력을 다지며 극복하려 했다.

지난해 4월 KT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 8304명을 특별명예퇴직 시켰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지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KT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명예퇴직 시행 이유를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KT는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2916억원을 기록했다. KT가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명예퇴직을 실시한 지난해 직원 수는 2만3371명이다. 명예퇴직의 여파로 평균 근속연수 또한 18.5년으로 2013년도에 비해 1.4년 단축됐다.

하지만 지난해 직원 1인당 급여액은 7000만원으로 2013년 6700만원 보다 약 4.5% 증가했다.

KT는 지난해 기록한 영업손실에 대해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며 "비용은 1조200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년도에 비해 작년 직원 1인당 급여액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2% 감소한 1조8251억원이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SK텔레콤 직원은 4253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1인당 급여액을 줄여서 고통을 감내했다. 지난해 평균급여는 1억200만원으로 2013년에 비해 2.9% 줄었다.

SK텔레콤은 직원 수를 늘리면서도 1인당 급여액을 줄이며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에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창립 이래 지난해 세 번째 명예퇴직을 단행한 KT는 8304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지만 직원 1인당 급여액이 증가해 SK텔레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은정기자 eunj71@

현대차 '싼타페 더 프라임' 고객 마음 담았다

소비자 선호사양 확대 적용

현대자동차는 4일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한 '싼타페 더 프라임'을 출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싼타페 더 프라임'에는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감축하도록 한 환경부의 유로6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친환경 고성능 e-VGT R엔진이 탑재됐다. 운전석과 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편의사양도 적용됐다.

현대차는 '싼타페 더 프라임'에 ▲충돌의 심각성에 따라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해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고, 동승석에 유아시트를 사용하여 유아를 탑승시킬 때 안전을 위해 동승석 에어백을 미작동시키는 기능이 적용된 '어드밴스드 에어백' 철치와 ▲앞 차의 속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돕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적용했다. 또 ▲전방의 위험 요소를 감지해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비상제동 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변경 시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을 가동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과속위험지역에서 자동으로 감속되도록 하는 '고속도로 안전운행 자동 감속 기능' 등의 안전사양을 채택했다.

'싼타페 더 프라임' R2.0 모델의 판매 가격은 2817만3633만원이다.

/이정필기자 roman@

벤츠 스마트포투, 핸들 볼트 결함… 해외서 잇단 리콜

8년 전부터 국내서도 판매
현재 3000여대 도로 누벼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의 경차 브랜드 스마트포투(사진)가 호주·중국·미국 등지에서 핸들 볼트와 관련된 결함으로 연이어 리콜 되고 있다. 핸들은 자동차 주행시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부분이다. 핸들에 결함이 생기면 운전자는 물론 다른 차와의 치명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벤츠 스마트포투는 이달 호주에서 26대, 지난달 중국에서 8456대, 4월 미국에선 5058대가 리콜 됐다.

호주의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벤츠 스마트포투의 핸들 볼트 문제로 26대를 지난 2일 리콜조

치 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어드바이스는 스마트포투가 호주에서 지난해 108대 판매됐다고 전했다. 이중 지난해 1~ 8월 생산된 스마트포투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중국에서도 핸들 볼트 문제로 8456대의 스마트포투가 중국 정부에 의해 리콜 조치를 받았다. 신화통신은 벤츠 스마트포투 8456대와 수입모델 A180, B180 1만585대도 함께 리콜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에서는 지난 4월 벤츠 스마트포투 쿠페 전기차 모델과 컨버터블 모델 5058대가 핸들볼트 공정 불량으로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STA)에 의해 리콜조치 됐다고 발표했다.

벤츠는 잇단 핸들 볼트 결함에 대해 "핸들 볼트 등 결함이 있는 부품에 대해 교체를 해주겠다"며 "미국과 호주에서는 리콜 해당 차종 결함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차가 사고시 다른 차에 비해 피해를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경차는 더 조심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포투는 8년 전부터 판매돼 3000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SKT 컨소시엄,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범사업 선정

은행 무인 점포를 비롯한 24시간 편의·프랜차이즈 매장 등 중소 점포 냉난방 관리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모한 빅데이터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에 중소형 매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에너지관리 서비스(WEMS)'가 선정돼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SK텔레콤이 상권분석시스템(지오비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SGA(대표이사 은유진)는 사업 주관을, 중소전문기업인 엔코디(대표이사 김동욱)는 H/W장비와 알고리즘 개발을 맡는다.

/정문경기자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 1위 〈신데렐라〉 19.8%(75명)
- 2위 〈팬텀〉 17.7%(67명)
- 3위 〈베어〉 13%(49명)
-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 잊을 모바일게임 야심작 몰려온다

NHN엔터, RPG 3종 등 수준 높은 신작 줄줄이 선봬

6월 불볕 더위에 폭염까지 예고되는 이번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이 몰려온다. 여름 사냥에 나선 업체가 신규 게임을 선보일 가운데 NHN엔터테인먼트도 국내외 다양한 기대작으로 여름사냥을 준비 중이다. 이미 글로벌 원빌드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NHN엔터는 수준 높은 콘텐츠로 무장한 모바일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3종을 국내에 선보였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크루세이더 퀘스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히어로즈 킹덤'·'브레이브헌터'·'킬미어게인' 모바일 RPG 3종사, 국내 출시 임박

국내 게임 시장은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에서도 역시 하드코어한 RPG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수준 높은 콘텐츠와 게임성으로 무장한 NHN엔터의 신작 RPG 3종사가 국내 게이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모바일 액션 RPG '히어로즈 킹덤'은 RPG의 베테랑들이 포진한 엠플러스 소프트의 야심작이다. 약탈 기반의 강렬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히어로즈 킹덤은 300여 종의 캐릭터로 즐기는 다양한 재미가 특징이다. 또한 터치 한번으로도 강하고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으로 지난 2월 프리미엄 테스트를 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히어로즈 킹덤은 상반기 중 국내 시장에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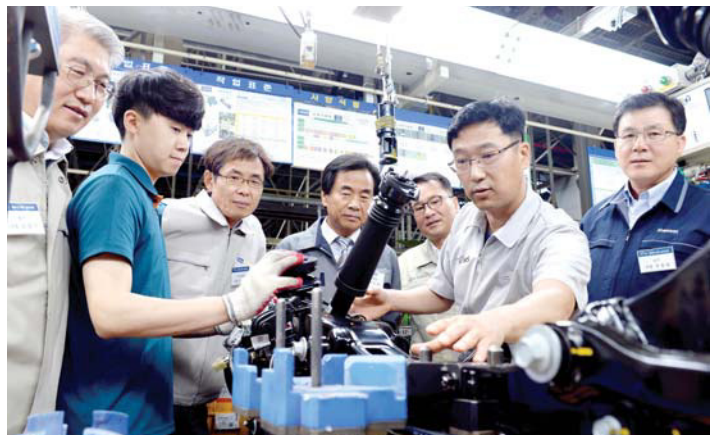
또다른 RPG 야심작 '브레이브헌터'는 다양한 공격 패턴과 역동적인 카메라 시점, 수준 높은 3D몬스터를 선보이며 완성도 높은 전투 액션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RPG에 헌팅 컨셉을 감각적으로 녹여낸 게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NHN스튜디오629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지난 4월 20일까지 비공개테스트를 했다. 브레이브헌터는 지난 2일에 출시됐다. 퍼즐과 풀 3D 리얼액션이 만난 '킬미어게인'은 좀비로 변한 사람들과 이들을 막기 위해 용병이 돼 사투를 벌이게 되는 리얼하고 다이나믹한 퍼즐액션 RPG다. 한 손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손에 착 달라붙는 퍼즐게임의 묘미와 함께 리얼하고 다이나믹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NHN픽셀큐브가 개발 중이며 역시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크루세이더 퀘스트'·'더소울' 해외 서비스 국가 확대

작년 11월에 글로벌 원빌드 게임으로 출시한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6월 중 일본에서 출시해 글로벌 흥행 열기를 잇는다.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최근 글로벌 다운로드 800만을 돌파하는 등 해외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NHN엔터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의 첫 성공 사례로 뽑힌다. 실제로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구글 플레이 매출 기준으로 싱가폴은 최고 4위, 태국은 9위, 대만은 12위를 차지할 만큼 아시아권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액션 RPG '더소울'은 중국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소울은 진나라를 배경으로 혼령으로 깨어난 삼국시대 영웅들에 맞서 전투를 펼치는 탄탄한 스토리와 방대한 콘텐츠로 지난해 12월 국내 이용자들에게 먼저 선보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캐릭터마다 스킬을 귀속시켰던 방식을 탈피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스킬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시스템인 '혼 카드'가 큰 호응을 얻었다. NHN엔터인먼트는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더소울을 중국 이용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철저한 현지화 과정을 거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왼쪽부터 '킬미어게인' '브레이브헌터' '더소울'. /NHN엔터테인먼트 제공

현대모비스, 300개 2차협력사 임직원에 6개 주요공장 개방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생산·품질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아산모듈공장을 찾은 협력사 임직원들이 공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라인을 견학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제공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플랫폼 '스토브' 공개

"게이머-파트너 가교 역할"

스마일게이트에서 글로벌 모바일 게임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다. 개발사·퍼블리셔와 게이머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4일 서울 한남동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토브' 사업설명회에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회장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스토브'를 최초 공개했다. 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선보인 스토브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집약한 것으로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스토브는 게이머들과 게임의 재미를 함께 만들어 가고 파트너사의 성장과 함께 커가는 '열려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브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날 스토브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탄생 배경과 지향점을 발표한 이동훈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부사장은 "스토브는 파트너사들에게는 게임에만 집중하고도 사업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열려 있는 플랫폼이자, 게이머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경험을 이어가게 해주는 '식지 않는 재미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스토브는 개발부터 운영, 사업까지 모든 부문에서 파트너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각 부문들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선보였다. 개발 파트에서는 주요 마켓 통합 빌링 시스템, 어뷰징 방지 시스템, 확장성을 보장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툴(SDK) 등을 제공해 개발과 인프라 비용을 줄여준다. 사업 파트의 경우 '스토브 콘솔'을 통해 실시간 지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국가 별 실시간 지표, 게임 별 통합 실적 리포트 등 통계 도구를 지원한다. /정문경기자

4일 서울 한남동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스토브' 사업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회장.

대유위니아, 딤채 출시 20주년 보상 판매

대유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러브 어게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 구형 모델을 신 모델로 교체하는 고객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하고, 20년 전 딤채 최초 모델을 보유한 고객에겐 당시 구입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36만원 상당 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이벤트는 지난 20년간 대유위니아의 김치냉장고를 사용해준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모델은 딤채 전 모델이며 온라인과 직·특판점을 제외한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양판점 등을 통해 구형 모델 반납 시 구입 제품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500ℓ급 이상 스탠딩 딤채를 구매할 경우 30만원▲400ℓ 이상 20만원▲330ℓ 이상15만원 ▲305ℓ 1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뚜껑형 딤채를 구매할 경우에도 10만~1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다만 진열품과 일부 모델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유위니아는 특히 20년 전 출시했던 딤채 최초 모델(CFR-052E)을 보유한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딤채를 재구매할 경우 기본 보상혜택에 당시 구입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3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양성운기자 ysw@

효성, 국립서울현충원서 1사1묘역 정화활동

효성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사1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효성나눔봉사단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9묘역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의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장형옥 효성나눔봉사단장은 "임직원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1사1묘역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호국보훈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지난해부터 전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인근의 국립묘지와 1사1묘역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 주요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화와 묘역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메르스 공포' 유통가 직격탄

손님 줄까… 식품·외식업계 '전전긍긍'

각종 행사 연기·취소 고객 안전·위생 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식품·외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불황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 부진이 회복되기도 전에 메르스로 또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와 밀접한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인 만큼 예정됐던 행사를 미루는 등 대응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이다.

오뚜기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소비자가 참여하는 충북 음성 공장 견학 행사를 취소했다. 농심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기와 충청 지역 공장 견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빙그레는 12일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예정된 어린이 그림잔치 시상식 개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SPC그룹은 직원들의 중동 등 위험지역 출장을 자제시키고 이미 위험지역을 방문한 경우 체온 측정 등 관리 방침을 세웠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식품과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기업은 메르스에 더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도 메르스로 손님이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출이나 고객 수가 메르스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고 보지만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생 강화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고객 안전 관리 지침 수립에 나섰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이 상황은 없는데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주·다음주가 고비라고 생각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안전경영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안전과 위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별곡을 운영하는 이랜드 관계자도 "예약했다가 우루루 취소하는 패턴은 없다. 평소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매장에서 손소독기를 배치하는 등 외식업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매장의 위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혹시라도 직원들의 메리스 감염을 대비해 사내에서 내부 공지도 따로 마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외식기업 강강술래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출이 줄거나 하진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점점 불안 심리가 커지면 단체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백화점·마트·재래시장도 초비상

손 소독제 비치·직원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 매장 내 시식행사 중단·남대문 등 방역 소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져가며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재래시장 등에 비상이 걸렸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접점 지역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등 청결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인구가 밀집되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전국 50개 점포를 대상으로 고객과의 접점 구역인 안내데스크와 물품보관소, 고객상담실, 유아휴게실 등에 손 소독제 5000개를 추가로 비치했다.

또 주방에서는 타액에 의해 음식에 감염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 후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열이 있는 등 메르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근 조치를 내렸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고객 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항균 물티슈와 손소독제를 배치하는 등 청결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매장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매장카트 소독·출근 직원들의 발열체크 등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메르스 발병지 중 한곳인 평택지역 내 6개 매장에서 시식행사를 중단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매장 위생관리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손세정제를 증정할 계획이다. 편의점인 GS25도 평소 비치하지 않았던 손세정제를 비치하기 시작했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너무 과도한 대응은 고객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며 "요란스럽게 대응하기 보다는 우선 청결과 직원들의 메르스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리가 쉽지 않은 재래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남대문 시장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사실상 마트나 쇼핑몰과 같이 관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중구청은 3일 남대문시장을 포함한 중구 전체에 살균제를 섞은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서울 중구청 건강관리과는 "사실상 방역 자체는 메르스 예방에 큰 효과가 없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시장 방문자 전체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감염자를 찾고 격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김성현기자 sweatsk@

'메르스를 막아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4일 서울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손에 손 세정제를 뿌려주고 있다. /뉴시스제공

메르스… '립스틱'으로도 감염될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가 테스트용 제품 관리 강화에 나섰다. 메르스가 환자의 타액이나 가래 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가 사용하는 테스트용 위생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4일 네이처리퍼블릭에 따르면 립 제품은 손등에 발라보도록 권하고 고객이 제품을 사용한 뒤 직원들이 바로 닦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매장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틴트류는 면봉으로 덜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오염이 잘 되는 제품은 교체 주기를 당기고 있다.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테스트용 제품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엄중식 교수는 "립스틱 등 화장품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화장품업계 위생 강화 총력

매장내 테스트 제품 관리 등

화장품 업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매장에 위생 관련 지침을 내리는 한편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경우 일정을 연기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전날 전사적으로 브랜드 별 매장을 비롯해 연구소 등에 손 소독제 비치 등 정부에서 권고하는 선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내 테스트 제품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크림류는 스패출러와 같은 스푼으로 떠서 사용하도록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 특히 색조 제품의 경우 바닥이 드러나야 교체를 해왔지만 최근 위생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 주기를 확대했다.

행사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13일 예정된 '이니스프리 행키시네마'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업계에선 아직까지 매출과 방문객 수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입점 매장의 경우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명동 등 로드숍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며 "3~4주가 지나면 메르스 여파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화된다면 판촉 등에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싸게 쇼핑도 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받고" 롯데면세점은 5일부터 7월16일까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영 플레저(Young Pleasure) 이벤트를 열고, 총 34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면세점 제공

배추값 고공행진… 58% 올라

소비자원, 가격분석 결과
생수·맥주는 대형마트 삼겹살은 재래시장 '저렴'

배추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양파·돼지고기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을 통해 수집한 5월 생필품 판매가격 분석 결과, 배추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보다 58% (2979원)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양파와 돼지고기 가격도 각각 34.1%, 18.4% 상승했다.

소비자원 측은 " 배추와 양파는 1월부터 지속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해 배추값 폭락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돼지고기는 구제역 파동 등으로 공급량이 줄었지만 나들이 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애경 세탁세제 '퍼펙트 하나로 리필(4400g)'(30.3%)이 가장 높았고 오뚜기의 생선통조림 '오뚜기 꽁치(400g)'(17.2%)와 '깨끗한나라 순수 3겹데코(30롤)'(17.1%)가 뒤를 이었다.

판매가격 하락률은 피죤의 섬유유연제 '피죤 엘로미모사(3500ml, 용기)'(-28.9%)가가장 컸고 유한킴벌리의 종이기저귀 '뉴하기스 프리미어4남아용 대형(60개)'(-23.7%), 아모레퍼시픽 '송염치약(480g*3개묶음)'(-19.2%) 순이었다.

5월 품목별 평균 판매가격 동향(1월 대비)

판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				
배추 58.0%	양파 34.1%	돼지고기 18.4%	즉석우동 12.1%	쌈장 7.2%
콜라 5.3%	생리대 5.3%	주방세제 4.9%	생선통조림 4.9%	즉석덮밥 4.7%

판매가격 하락률 상위 10개 품목				
키친타월 -17.7%	마가린 -8.9%	표백제 -7.8%	단무지 -7.4%	치약 -6.8%
혼합조미료 -6.7%	일반샴푸 -5.8%	썬크림 -5.2%	세면용비누 -3.9%	베이비로션 -3.3%

/한국소비자원 제공

5월 한 달간 제품별 최고·최저 판매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CJ제일제당 식용유 '백설국내콩기름(900ml)', 한국P&G 섬유탈취제 '페브리즈 깨끗한 무향(900ml)'으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업태에 따라 가격이 4.6배 차이가 났다.

유통업태별로 여름철 성수품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선 대형마트는 생수(삼다수·2L), 습기제거제(물먹는하마참숯·8개묶음), 비타민음료(비타500·100ml*10개), 과일통조림(오뚜기황도·400g), 캔커피(칸타타원두커피프리미엄블렌드·275ml), 감자칩(포카칩오리지날·63g), 맥주(HITE·355ml*6캔)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기업형슈퍼(SSM)에선닭고기(하림자연실록백숙·830)와 썬크림(니베아 Fresh Sun Lotion·125ml)이, 전통시장은 돼지고기 삼겹살(100g)과 사이다(칠성사이다, 1500ml), 이온음료(포카리스웨트·500ml) 가격이 다른 유통업태에 비해 저렴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삼양바이오팜, 항암 신약개발 박차

美 컴플리먼트사와 종양 침투촉진기술 도입 계약

삼양그룹(대표 김윤)의 의약바이오 계열사 삼양바이오팜은 미국 컴플리먼트사(Compliment Corporation)와 종양침투촉진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삼양바이오팜이 도입한 종양 침투촉진 기술은 'Opus'라는 바이오 물질이다. Opus는 암세포와 암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단백질인 Desmoglein-2를 끊어준다. 워싱턴대학에서 2009년 분리된 바이오테크 회사인 컴플리먼트사가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삼양바이오팜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체 보유한 나노 약물전달기술을 적용한 항암제와 컴플리먼트사의 Opus 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전 세계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 사이의 단단한 결합물질 때문에 암 조직 내부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암조직의 표면부터 치료해가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항암제의 오랜 기간 투여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삼양바이오팜은 Opus가 암세포 간의 단단한 결합물질을 끊어주면서 항암제를 암 조직으로 유도해 내부 깊숙이 침투, 항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CJ, 8만톤 규모 메치오닌 공장 본격 가동

프랑스 아르케마사와 협력 포도당 원료 친환경 공법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은 프랑스 아르케마사와 손잡고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8만톤 규모의 사료용 필수아미노산 L-메치오닌 공장을 본격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4일 오전 말레이시아 테렝가누(Terengganu)주에 위치한 컬티(Kerteh)지역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티에리 르 에나프아르케마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용 필수아미노산 L-메치오닌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세계 최초로 원당과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으로 L-메치오닌을 생산한다. 이미 지난 1월 말 첫 제품을 출하한 후 현재 완전 가동 중 이다. 차별화된 기술경쟁력과 메치오닌 핵심원료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수율과 안정적인 물량 생산

이 기대되고 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이날 "L-메치오닌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면서 CJ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으로 라이신과 쓰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메치오닌 등 5대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현대리바트, 강북 공략 나선다

스타일샵 창동전시장 오픈

현대백화점그룹의 생활문화기업 현대리바트(김화응 사장)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리바트스타일샵 창동전시장'을 연다고 4일 밝혔다.

2500㎡ 규모인 리바트스타일샵 창동전시장은 강북권에 오픈한 첫 대형 홈인테리어 매장이다.

노원·강북·도봉구는 50만 세대가 생활하는 대규모 거주지역으로 신규 전입·전출이 많아 홈인테리어 수요가 활발한 지역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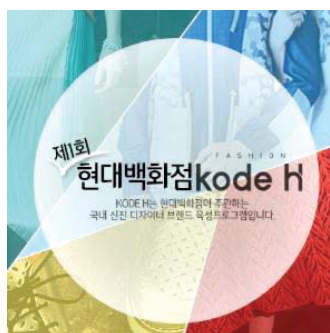
리바트스타일샵 창동전시장은 6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거실·매트리스·학생용·키즈 가구 등 가정용 가구 뿐만 아니라 주방가구·홈데코·주방용품 등도 선보여 한자리에서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대리바트는 서울 직영점 5개(논현·잠실·강동·용산·창동)를 시작으로 울산·부산·분당·수원 등 주요 광역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현대百, 토종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나서

현대백화점은 신진 디자이너에게 전용 매장의 입점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5~7일 서울 무역센터점에서 '제1회 현대백화점 코트에이치'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참여 브랜드는 이청청 '라이', 신동훈 '바이로디', 강연정 '앤모어', 김선부 '부부', 노학재 '이루나니', 이지운 '컨트롤클로더'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들에게 무역센터점과 목동점에서 운영 중인 편집숍 '쏘울331' 그리고 8월 문을 여는 판교점 등에 전용 매장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3월 신진 브랜드의 국제 패션 수주회인 '패션코드 2015 F/W'를 공식 후원했다. 이어 5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패션 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를 전략 상품으로 육성해 올해 토종 신진 브랜드의 매출을 1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7월 열릴 패션코드 2016 S/S에도 참여해 신진브랜드를 계속해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식약처, 댕기머리에 제조·광고 정지처분

허가받지 않은 제조법으로 샴푸를 만든 두리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재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전지방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기 감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55개 품목은 제조과정에서 개별 추출하지 않고 혼합·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조·품질 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

광동제약, 사진으로 소통경영 실천

임직원 대상 공모전 열어 사내 게시판에 300여점 올라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부상

최근 임직원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는 '소통경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가운데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임직원 대상 사진공모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임직원이 참여한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을 6월 말까지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산사진공모전'은 광동제약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300여 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이 중 사진작가의 심사를 거쳐 가산 포토그래퍼상(최우수상) 1명, 광동 포토그래퍼상(우수상) 2명 등 최종 21명의 수상자와 2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가산사진공모전 광동 포토그래퍼상(우수상) 수상 작품(제목 : 불타는 한강의 UFO).

광동제약은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 25점은 고급 액자로 제작하여 전시 후 출품한 임직원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가산 포토그래퍼상(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단비 사원은 "취미로 틈틈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준 덕분에 제 작품을 동료들에게 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산사진공모전' 수상작은 광동제약 본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제약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로 가산사진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공모전 및 전시회가 부서와 근무지를 초월한 임직원 소통의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국내외 친환경 기술 한자리 모인다

코엑스서 'ENVEX 2015' 22개국 250개 업체 참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만)는 국내외 친환경 기술·제품을 한자리에 선 보이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5)'을 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37회째를 맞는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은 181개 국내업체와 미국·중국·일본·유럽지역 등 해외업체 69개사 등 총 22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환경산업을 선도해 나갈 환경신기술 및 친환경 상품 등 총 2000여 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다. 32개국의 바이어 360여 명을 직접 초청해 전시회 현장에서 2500여억원의 구매 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 전시품.

특히 친환경 생활제품 중 절수형 양변기는 물 사용량이 일반변기(9~13ℓ)의 최대 3분의 1(4.5ℓ)에 불과하다. 중력에 따라 변하는 배출구조를 적용하여 막힘과 소음문제를 해결한 제품으로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산 또는 알칼리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 색깔이 변하는 감지용 테이프는 무색무취와 소량의 화학물질 누출 시에도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홍동곤 과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로 다양한 환경기술을 보급하고 미래 환경기술을 예측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

강강술래 "양념구이 사면 한우불고기는 덤"

14일까지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까지 덤 증정·파격할인 이벤트를 연다.

강강술래는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구이(520g) 또는

술래양념구이(520g)를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한우양념불고기(500g)를 덤으로 증정한다.

또 계속되는 이른 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기력보충과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60% 할인된 2만5200원, 갈비탕박스(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한다.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는 50% 할인된 3만원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백두산 완다그룹 골프장서 럭셔리 힐링골프

해발 800m에 자리잡은 '백두산 완다그룹 골프장'은 총 54홀에 3개의 18홀 코스로 작년 5월 공식 오픈했다.

'황금 곰 잭 니클라우스', '자연 골프 설계의 아버지 로버트 트렌트 존스'와 같이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 원시림 백두산의 순수지형을 그대로 살린 색다른 코스설계로 전세계 골퍼들의 이목을 한눈에 끌었다. 골프장은 백두산 한 여름에도 평균 22℃ 안팎을 유지하는 선선한 기온으로 라운딩을 위한 최적의 기후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백두산 완다그룹 리조트는 중국 길림성(Jilin)에 있다. 백두산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인 장백공항까지

백두산 완다그룹 골프장 전경.

는 차로 불과 15분 거리다.

현재 국내 여행객은 인천공항뿐 아니라 김포, 청주, 부산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해 최소 1시간 소요의 연길, 대련, 장춘, 심양, 베이징 공항에 도착, 다시 국내선 또는 셔틀버스를 통해 장백공항까지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 할 수 있다.

/복현명기자

이화의료원, 러시아 의료시장 공략 집중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러시아 의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환자 유치 홍보대표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러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 마케팅 활동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했다.

백남선 병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주립 의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특히 백남선 병원장은 러시아의 태평양 주립 의과대학(Pacific State Medical University)에서 개최된 '블라디보스톡 국제 유방암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의 유방암 조기 발견 및 검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현지 교수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최치선기자

스탠포드호텔, 로맨틱 프로포즈데이 패키지

스탠포드호텔은 30일까지 '로맨틱 프러포즈데이 패키지'와 '라이프 에즈 씨네마(Life as Cinema)'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객실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러포즈데이 패키지는 주니어스위트룸 1박, 조식뷔페 2인, CGV 골드클래스 프러포즈대관(30분 기준), 와인+치즈세트, 몰튼브라운 바디세트(Body set)를 총 40만5000원에 제공한다.

도심 속 편안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에즈 씨네마 패키지 A는 더블룸 1박, 조식뷔

페 2인, CGV 영화관람권 2인+미니팝콘, 수제초콜릿 1세트를 15만8000원에 선보인다.

패키지B는 주니어 스위트룸 1박, 조식뷔페 2인, CGV 영화관람권 2인+미니팝콘, 와인+치즈세트, 몰튼 브라운 바디세트를 22만3000원에 판매한다.

잇츠스킨 '달팽이 크림' 몽드 셀렉션 대상

잇츠스킨은 '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달팽이 크림)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몽드 셀렉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후생성에서 인가한 기관으로 전세계 미용·음료·음식·건강·주류 제품 중에 품질력이 우수한 제품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달팽이크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제품력을 입증했다. 이 제품은 달팽이 점액 여과물 1만2600㎎(농도 21%)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전 세계

에서 '6초에 한 개'씩 팔리며 국내뿐아니라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잇츠스킨 젤 타입 수분크림 '순수 수분 젤'은 몽드 셀렉션 은상을 수상했다.

한편 몽드 셀렉션 2년 연속 대상 수상을 기념해 달팽이 크림 구매 시 포인트를 4배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18일까지 진행한다.

/김수정기자

돈·욕망 보다 사람·사랑이 더 중요해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끝마친 이준

지난 2일 종영한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배우 이준(27)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그룹 엠블랙 탈퇴 이후 배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중과 정식으로 만난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바라온 배우의 꿈을 이루게 해준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드라마 종영 이후 인터뷰에서 만난 이준은 오히려 덤덤했다. 그는 "연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지만 다른 작품들보다 특별히 더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열심히 안한 작품은 없었다. '풍문으로 들었소'도 다른 작품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드라마 '밀회'의 안판석 PD와 정성주 작가가 다시 뭉친 '풍문으로 들었소'는 속물의식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상류층에 대한 풍자로 시청자에게 통쾌한 웃음을 안겼다. 이준이 연기한 한인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 권력과 욕망만을 좇는 한정호(유준상) 집안의 아들인 한인상이 서민층의 딸 서봄(고아성)과의 뜨거운 하룻밤으로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드라마의 본격적인 갈등과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영화 '배우는 배우다'의 스타 오영, 드라마 '갑동이'의 사이코패스 킬러 류태오 등 이준은 주로 거칠고 센 역할을 연기해왔다.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풍문으로 들었소'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여태까지 안 했던 역할이나 신선함이 있는 것"이 그의 작품 선택 기준이다.

> "가수 아닌 배우로 대중 만난 첫 작품
> 센 이미지 벗고 찌질한 모범생 변신
> 마침내 이룬 꿈… 물 흘러가듯 연기"

"모범생에 얌전하고 조용한 캐릭터의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센 역할만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선택하게 됐어요.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출연을 결심하고 촬영에 들어가기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이준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끌어와 한인상의 감정에 녹아들었다. 서봄과의 관계에서는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10대 시절 첫사랑의 기억과 감정을 많이 떠올렸다.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 선배들을 대할 때를 참고했다. "저희 부모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한인상 같았다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정말 못 살았을 거예요(웃음)."

극중에서 한인상은 한정호와 달리 돈과 욕망 대신 사랑과 삶을 선택한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준은 "나는 돈보다 사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며 한인상의 선택에 손을 들었다. "예전부터 돈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불안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한정호처럼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다. "돈도 많고 권력도 세면 삶이 오히려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아이돌 가수로 대중 앞에 처음 섰지만 이준의 꿈은 늘 배우를 향하고 있었다. 배우라는 이름표를 단 지금 그는 매 순간 연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풍문으로 들었소'를 찍는 동안에는 1주일에 한 번 꼴로 연기에 자극을 받았다. 다음달에는 영화 '손님'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꿈을 이룬 지금, 이준은 '흘러가듯이 연기 하는 삶'을 위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star bag

YG 패밀리 전격 합류

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가 YG 패밀리의 식구가 됐다. 유병재는 방송작가이면서 뛰어난 개그감각을 지닌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YG 측은 "유병재는 뛰어난 재치와 감각을 지닌 방송인일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관련 작가로서의 활용도도 높아 영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예부 기자로 영화 촬영 끝

배우 **박보영**이 지난달 31일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의 촬영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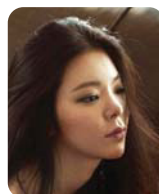
박보영은 취직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던 연예부 수습 기자 도라희를 연기했다.

정재영이 도라희의 상사인 하재관 부장 역을 맡았다. 후반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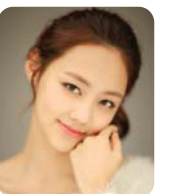
새 앨범 들고 11일 컴백

가수 **장재인**이 새 앨범 '리퀴드'를 들고 오는 11일 컴백한다.

엠넷 '슈퍼스타K2' 출신인 장재인은 지난해 근긴장이상증을 진단받고 투병하다 3년 만에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3일에는 '리퀴드'의 수록곡 '나의 위성'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모델서 배우로 변신

모델 **전유림**이 나무엑터스와 손잡고 배우 활동을 시작한다.

나무엑터스는 4일 "전유림의 연기자 진출과 연기 활동에 대해 에스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유림은 2014년 디자이너 박수우의 패션쇼로 모델로 데뷔해 패션과 뷰티 영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우리 시대의 부모님에게
가슴 가득, 눈부신 감동을!

내 생애 가장 찬란했던 나의...

악극 봄날은 간다~

2015.5.1(금)~6.21(일) 디큐브아트센터

양금석 최주봉 정승호 윤문식 최선자 이윤표 김장섭

최정연 전상진 곽인호 심태선 김선아 정종훈 함태영 조성범 김주승 고혜란 채시현 정경진 도레미 권민수 이봄이 서재홍 김행운 이윤수 김윤선 권소랑 박경진 양성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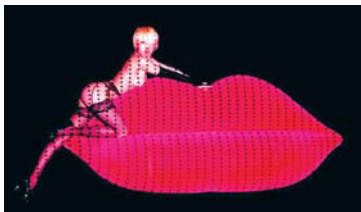
예술감독 김영수 이건왕 프로듀서 신춘수 임동균 연출 김덕남 극작 김태수 안무 오재익 음악감독 박주현 무대 디자인 서숙진 조명 디자인 공홍표 음향 디자인 권도경 의상 디자인 조문수 소품 디자인 조윤형 분장 디자인 윤경남 기술감독 김미경 무대감독 구준호 제작감독 이승진

주최 SBS 협찬 신한캐피탈 후원 신한금융그룹 TV조선 제작 ShowPLAY 홍보마케팅 강 공연문의 오픈리뷰 1588-5212 티켓예매 인터파크, 클립서비스, 예스24, 옥션티켓

프랑스 누드 퍼포먼스 '크레이지호스 파리'

전 세계 1500만 명이 열광한 전설적인 프랑스 아트 누드 퍼포먼스 '크레이지호스 파리(Crazy Horse Pairs)'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광장동 워커힐 시어터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카바레 쇼로 프랑스 상류층에게만 허락된 문화 아이콘 '크레이지호스 파리'는 옷을 벗고, 빛과 색과 예술을 입었다는 평가로 유명하다. 특히 조명을 이용한 영상으로 프랑스 오뜨 꾸뛰르 패션쇼의 의상처럼 나신에 색과 빛을 입힌 네이키드 꾸뛰르(Naked Couture)라는 장르로 알려져 있다.

발레리나 출신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뽑힌 크레이지호스 무용수들은 독무 또는 칼군무로 뛰어난 미적, 시각적 조화와 균형된 몸짓으로 16가지 테마의 살아 움직이는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신비로움과 환타지를 자아낸다.

이번 서울 공연은창립65주년 기념특별투어로 기획됐다. 특별히 20세기 프랑스 문화 예술의 산실인 '카바레'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샴페인 패키지를 함께 제공한다. 파코 라반, 칼 라거펠트, 엠마누엘 웅가로 등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공연 속 의상과 소품 디자인도 화려하다. 문의: 02) 517-0394 /김민준기자 mjkim@

사랑 받지 못하는 김하늘?

영화 '여교사' 캐스팅 확정 올 여름 크랭크인 예정

배우 김하늘이 영화 '여교사'(가제) 출연을 확정했다.

'여교사'는 두 여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남자 고등학교 여교사 효주, 새로 부임한 후배 교사 혜영, 그리고 제자 재하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명적인 파문을 그린다.

김하늘은 효주 역을 맡았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는 순간 강하게 이끌렸다. 그동안 주로 사랑 받는 인물을 연기해왔는데 사랑 받지 못하는 효주의 건조하고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혀 헤어나오기 어려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교사'는 단편 '얼어붙은 땅'으로 칸영화제에 국내 최연소 감독으로 초청된 김태용 감독의 신작이다. 김 감독은 장편 데뷔작 '거인'으로 제44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초청,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과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했다. 류승완 감독의 '베를린' '베테랑' 등을 만든 외유내강이 제작한다.

'여교사'는 남은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올 여름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주말 하이라이트

검투사 변신 빅뱅과 경쟁

◆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일요일 오후 6시 10분

'시간 속의 질주'편. 고대 로마에서 찾아온 검투사, 빅뱅이 나타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런닝맨 멤버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망가지는 것도 서슴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그들의 마지막 레이싱은 점점 과열되는데, 과거로의 시간여행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 25분

10주년 휴가인 줄 알고 떠났던 '해외 극한 알바' 두 번째 이야기. 멤버들은 또 속았다는 후회 속에서도 일을 마치면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말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 SBS '정글의 법칙 in 얍'

금요일 오후 10시

미크로네시아 제도에 위치한 얍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김병만 족장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괴물 장어가 나타나 '정글여신' 박한별·다솜과 힘을 합쳐 사투를 펼친다.

◆ tvN '삼시세끼 정선편'

금요일 오후 9시 45분

옥순봉에 무려 7명의 손님이 찾아온다. 미운 사십대 이서진은 불볕더위 속에서 그토록 원했던 냉장고를 얻는다. 얼음 가득한 레몬에이드와 여름밥상에 어울리는 미역냉국을 만든다. /정리=하희철기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일(토)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6시 10 징비록 (32회) (재) 17시 10 동물의 왕국 18시 00 동행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희망창조 코리아 창조 DNA 미래를 그리다 21시 40 징비록 (33회) 0시 00 콘서트 7080	12시 30 개그 콘서트 (재) 14시 05 슈퍼맨이 돌아왔다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31회) 21시 15 프로듀사 (8회) 22시 35 연예가 중계 23시 45 인간의 조건 3 – 도시농부 0시 55 오렌지 마말레이드 (5회) (재)	13시 20 맨도롱 또똣 (재) 15시 40 쇼! 음악중심 16시 55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0 무한도전 (431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15회) 22시 00 여왕의 꽃 (25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12시 0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재) 13시 10 풍문으로 들었소 (30회) (재) 14시 20 런닝맨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5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0시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 1~5) (재) 15시 00 현충일 특집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17시 50 장학퀴즈 (956회) 18시 40 한국기행(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종합 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굿모닝 베트남>	13시 20 유자식상팔자 (104회) (재) 14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9회) (재) 16시 00 사랑하는 은동아 (1~3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사랑하는 은동아 (4회) 21시 5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8회) 23시 00 엄마가 보고있다 (7회) 0시 40 김제동의 톡투유 스페셜 (5회)

7일(일)	KBS1	KBS2	MBC	SBS	EBS1	JTBC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6시 10 징비록 (33회) (재) 17시 40 2015 통일박람회 개최기념 열린음악회 19시 10 도전 골든벨 21시 40 징비록 (34회)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1시 55 복면검사 (6회) (재) 13시 10 프로듀사 (8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44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32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799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스타일 포 유 (10회)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15·16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16회) 22시 00 여왕의 꽃 (26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세바퀴 스페셜	12시 1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5회) (재) 13시 15 가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500회 특집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6회) 23시 10 SBS 스페셜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머니볼> 16시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 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 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돌아오지 않는 해병>	13시 20 썰전 (118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48회) (재) 16시 1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8회) (재) 17시 25 냉장고를 부탁해 (29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20시 4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6회) 23시 00 닥터의 승부 (178회)

metrosports

스리볼인데 1루?… 블라터 덮친 '펠레의 저주'

스포츠 주간 해프닝

3볼로 출루… 아무도 몰라

메이저리그에서 3볼 상황에 타자가 볼넷처럼 출루했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신시내티 레즈의 조이 보토(32)다.

보토는 1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2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팀이 3-2로 앞서던 7회말 타석에 나서 6구를 볼로 고른 뒤 방망이를 던지고 1루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경기장의 전광판과 TV 중계 화면의 볼카운트는 3볼-2스트라이크였다. 볼넷이 아니라 3볼 상황에서 출루한 것이다.

하지만 투수를 포함한 워싱턴 선수·코칭스태프와 심판은 물론이고 TV 중계진, 관중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출루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3볼 상황에서 출루한 것을 알게 됐다.

조이 보토

보토가 1루로 출루한 뒤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신시내티는 기세를 몰아 7회말에 5점을 추가 득점해 결국 8-2로 경기를 마쳤다. 보토가 일부러 모두를 속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초구를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라도 보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펠레

황재균

블라터도 못 피한 '펠레의 저주'

펠레의 지지발언이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자진사임하자 현실과 정반대되는 예측을 의미하는 '펠레의 저주'가 또 다시 적중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축구 황제' 펠레(74)는 역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승 후보로 점쳤던 팀들이 매번 우승은커녕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발언을 할 때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을 두고 '펠레의 저주'라는 별칭이 붙었다.

'펠레의 저주'는 블라터 회장에게도 적중했다. 펠레는 FIFA의 부패 스캔들로 블라터 회장에 대한 전 세계 축구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던 지난 2일 "(FIFA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필요로 한다"며 블라터 회장의 5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채 하루를 가지 못했다. 블라터 회장이 3일 그의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임 의사를 밝힌 탓이다.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펠레의 저주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휘됐다.

자기가 친 공에 얼굴 맞아

롯데 자이언츠의 황재균이 본인이 친 타구에 본인이 맞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황재균은 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9회초 1사 상황에서 타석에 올랐다. 삼성의 좌완 백정현과의 대결이었다. 1볼-2스트라이크로 몰리자 황재균은 바깥쪽으로 빠지는 커브에 방망이를 갖다 댔다. 순간 공이 그의 얼굴로 치솟았다. 자신의 파울 타구에 얼굴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황재균은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해 시간이 지난 뒤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공에 맞은 상처가 명확하게 남고 말았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리오넬 메시와 카를로스 테베즈.

메시 vs 테베즈 정면대결

7일 챔피언스리그 결승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카를로스 테베즈(유벤투스)가 올시즌 유럽 축구의 대미를 장식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대결 한다.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는 7일(한국시간) 오전 3시 45분 베를린 올림픽슈타디온에서 20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다. 승리 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 뿐만 아니라 '트레블(한 시즌 리그·챔피언스리그·컵대회 우승)'까지 달성하게 된다.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는 이미 자국리그와 컵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메시는 올시즌 거의 모든 면에서 테베즈를 압도했다.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12경기에서 10골 5도움을, 테베즈는 7골 1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테베즈는 빅매치에 강하다.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도 1골 1도움으로 결승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희철기자

메르스 여파 체육계도 '불똥'

수원컵·대학농구·전국리듬체조 줄줄이 취소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국내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4일 "메르스 때문에 2015 수원 컨티넨탈컵 U-17(17세이하) 국제 청소년국가대표 축구대회(이하 수원컵)를 연기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대회 개최와 연기에 대한 승인은 축구협회의 몫인 만큼 내부 회의를 통해 대회 연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와 장결희가 참가해 10~14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수원시는 이번 대회를 미루는 게 낫다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 대회 관계자는 오는 8~9월 사이에 대회를 치르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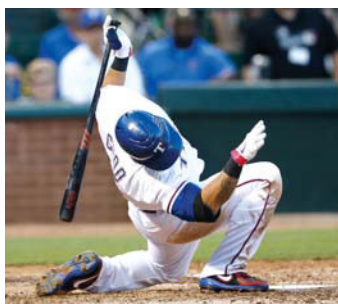
4일 오후 열기로 한 2015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마지막 경기도 취소됐다. 대학농구연맹 관계자는 리그가 다시 시작되는 8월에 잔여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제28회 회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도 잠정 연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대회 참가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일반부에 걸쳐있다"면서 "학생들이 많고 국내 대회는 일정 조정이 가능한 만큼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리듬체조대회와 함께 예정됐던 아시아선수권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희철기자

수원컵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U-17 축구 남자대표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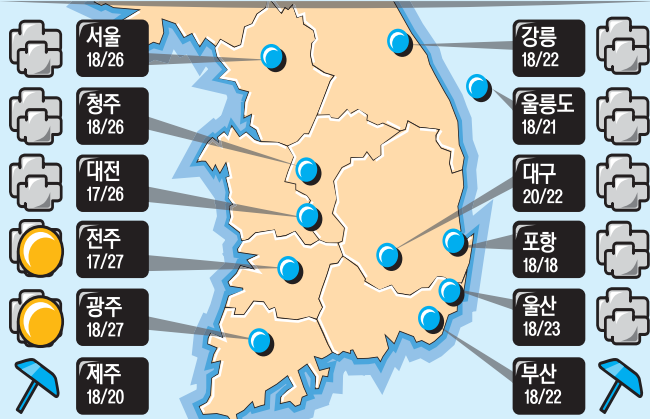
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 대타 출전 2타점

메이저리거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나란히 방망이에 불을 뿜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2개를 얻어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9(181타수 45안타)로 약간 올랐다.

4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상대 투수 세일의 몸쪽 위협구를 가까스로 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텍사스는 화이트삭스의 왼손 선발 투수 크리스 세일에게 농락당한 끝에 2-9로 완패했다.

강정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3-1로 앞선 9회초 1사 2·3루 상황에서 투수 자레드 휴즈의 타석에 대타로 등장해 2타점 2루타를 날렸다. 시즌 8번째 2루타로 19번째 타점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도 0.281에서 0.287(115타수 33안타)로 끌어올렸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적시타로 5-1까지 달아난 뒤 9회말 만루 위기를 1실점으로 넘겨 5-2로 승리했다. /하희철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7	4		5	1		3
	9						6	5
		1	5		9			
9		6	1					
		5	3		4			
	8						3	9
		3	9		2	4		6
							7	

5		6						
				6	7	3		
				3		8	9	
	2	9		8	4			7
	6							
	5	4		2	6			9
				5		6	3	
				1	8	4		
1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MERS, China's Problem <메르스 사태, 문제는 중국이다>

While MERS spread throughout Korea, a survey was made to the critics of Hong Kong.

80% stated that this incident gave a negative image of Korea. Chinese feel no different from Hong Kong people.

B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oward this incident is nearsighted. There is no sign of concern for China. Rather, they are planning to advertise in term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venting the spread of MERS is an urgent matter in Korea, but there are many more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 other th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is not the time to sit and watch.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심화되는 동안 홍콩의 봉화망은 누리꾼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약 80%가 "(한국인의 메르스 전파와 격리 거부로) 한국 국민의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홍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다. 시선을 돌려 중국을 살피는 기미조차 안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홍보나 하겠다고 한다.

국내의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에 보건복지부나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때가 아니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수차례 이직… 안정된 직업 가질수 있을까요
7월 소소한 기술 배울수 있는곳 찾으시길

홍두께 남자 61년 4월 2일 양력 8시경

Q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저는 올해 55세 남자로 생일은 4월 2일 양력입니다. 오늘날까지 직장을 수없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안 해 본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싫어서, 못 견뎌서 나온 예가 있으며 어느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외국으로 이전 하는 바람에 따라갈 형편이 안 되어 주저 앉다보니까 직장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지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갖고 노후를 대비 할 수 있을까요?

A 사주적인 설명을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태어난 날 생 일주(生日柱)가 을축(乙丑)일생으로 지지(地支)에 신금(辛金)이라는 칼을 두었으니 혼자 잘할 수 있는 기술직과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운의 흐름으로 볼 때 특별한 기술을 접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하면 돈독히 하려는 노력보다는 불편함을 피해가는 착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운명은 자기의 갈 길을 꿋꿋이 간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딪치게 되는 괴로운 여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목(乙木)사주가 묘월생(음력2월生)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도도 없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할 것입니다. 사주천간(天干)에 금기(金氣)가 강하게 작용되어곧고 우직하여 융통성이 부족하니 그동안 과거 지난 운에서 잘 적응해 내지를 못하여 직장을 수없이 옮겨 다니게 된 것입니다. 아쉽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으나 실망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한 길을 묵묵히 가야 사주의 기운이 혼란스럽지 않게 될 것인데 나를 지배하는 기운인 관살(官殺)이 혼잡하여 돈은 별로 벌지 못하면서 일거리만 운에서 또 가중되어 들어오니 직업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못 피한다' 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말 한 것이며 모든 게 '팔자소관'이란 말이 생긴 것 또한 같습니다. 을목(乙木)사주가 7월 지나면 병화(丙火)태양빛이 비쳐 열매를 맺게 되니 취업이 가능한데 이왕이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곡각살(曲脚殺)이 있으니 큰 기물을 만지기보다는 소소한 기술을 배우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5일 (음 4월 1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0년생**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낍니다. **72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84년생** 들떠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목표가 너무 큰 것이 탈 입니다. **61년생** 갈팡질팡하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3년생** 유리하게 흐름이 변하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50년생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62년생** 뜻밖의 인연이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86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51년생 공익을 앞세워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63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세요. **75년생**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87년생**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52년생 나이 어린 쥐띠를 조심하세요. **64년생** 혼자 꾸리기 보다는 동업을 하세요. **76년생** 서두르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88년생**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53년생 큰 일을 이뤄 행복하게 됩니다. **65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나 얻은 이루어집니다. **89년생** 님도 보고 뽕도 따는 하루입니다.

5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6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합니다. **78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90년생** 미루지말고 과감하게 추진하세요.

55년생 주위의 얕은 말을 듣고 꺽이지 마세요. **67년생**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세요. **79년생** 쇠를 끊을 정도의 힘이 생겨납니다. **91년생** 누군가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56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68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 진전이 더 알찬 하루입니다. **80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조심하세요. **92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57년생 두려움을 멀리하고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69년생**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81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93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색잡기를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59년생 돈이 술술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71년생**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83년생** 주변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95년생** 애인과 다툴 수 있습니다.

메르스 재앙 막으려면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김하성의 세상보기

온 나라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에 휩싸여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우려했던 3차감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오전 5시 현재 확진 환자는 35명으로 늘어나고 치사율이 5.7%(3명 사망)를 기록했다. 군에서도 처음으로 의심환자가 발생하는등 보건당국이 격리·관찰 중인 대상자가 1667명으로 집계됐다. 자고나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염 우려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820곳이 넘는학교와 유치원이 휴교에 돌입했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등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학교도 100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메르스 쇼크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사태가 확산되면서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한국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이 이달들어 3일 간 1만1800명에 달하고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성수기인 7, 8월 국내 호텔의 중국인 관광객 예약건수도 평년에 비해 무려 80%나 줄면서 호텔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행사나 모임을 연기하고 중동지역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산업계도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경제는 세월호 충격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이번주는 메르스 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아픔을 겪고도 아직까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휴업 학교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교사·학생의 격리자 숫자에 대해서도 다른 수치를 내놓은 등 엇박자를 냈다.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는 이유다.

오죽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을까. 여당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조차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허술한 방역체계로 국민들이 느끼는 메르스 공포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민심도 흉흉해 지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컨트롤타워가 24시간 제대로 작동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정치권도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뉴미디어국장

어바인과 동대문 면세점

기자 수첩

박 상 길 <생활유통부 기자>

포드와 토요타 등 세계적 자동차의 디자인·연구개발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미국 LA의 중소도시 어바인(Irvine)은 기업 활동의 천국으로 불리는 도시다.

지역 정부와 대기업이 손잡고 건물과 자금을 지원한 결과 신생벤처기업과 중소기업 1만6500여 곳이 빼곡이 들어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바인 주식회사는 지금도 신생 벤처기업들의 든든한 후원자다.

어바인은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격전지로 떠오른 동대문과 오버랩된다. 동대문에도 어바인과 같은 상생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까?

지난 1일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이 마감된 뒤 동대문에 유치 기업이 대거 몰리면서 누가 가장 먼저 상생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대문 면세점 후보지는 롯데피트인, 헬로apM, 맥스타일, 제일평화시장, 케레스타 등 5곳이다. 롯데면세점-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그랜드관광호텔, 키이스트, 제일평화시장 컨소시엄, SK네트웍스 등이 뛰어들었다. 이들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반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와 달리 동대문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십만명이 넘는 시장 상인들과 주변 수천개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물론, 동대문을 발판으로 미래 패션왕을 꿈꾸는 수많은 가난한 신진 디자이너들과 삶의 터전을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만난 동대문 상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보다 면세점에서 더 저렴하게 팔면 폭삭 망하게 될 것"이라며 한숨 섞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동대문을 패션한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면세점을 고민해보자. 그러면 패션 기업 활동의 천국인 서울의 어바인을 꿈꾸는 것도 상상속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이나영, 원빈 커플의 결혼식이 화제다. 초록색 들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행진하는 모습은 영화 속 장면보다 더 낭만적이었고, 큰 가마솥에 삶은 국수를 나눠먹는 소박함은 삶의 지향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였다. 결혼식은 초원 위에서 양가의 가족들만 모여 치러졌다. 시골 풍경 외에 어떤 장식도 없었고, 마음을 다해 행복을 빌어줄 가족이 하객의 전부였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 물질이 아닌 마음을 남김 없이 꺼내 놓는 것이 이 시대의 명품이란 걸 보여줬다.

헤리에타 톰슨은 지난 주말 92세 65일의 나이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7시간 24분 36초의 기록은 당연히 최고령 기록이었고, 전 인류에게 불굴의 의지를 전하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두 번이나 암 투병을 했고,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했고,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한쪽 다리를 치료받았다. 젊은 시절 뉴욕 카네기홀에 세 번이나 섰던 피아니스트로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었다. 마라톤을 시작한 건 70세가 넘은 어느 날 백혈병,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 마라톤 참가를 권유받고서 였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뛰었다면 이런 대기록을 세웠을지 모르겠다.

5월의 마지막 근무일.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팬택의 공장에 열 일곱 명의 직원이 출근했다. 그한 때 1400명이 북적댔던, 화장실 가기 위해 줄 서는 것조차 힘들었던 생산라인에서 그들은 웃었다. 미국 버라이즌사에 납품하기로 된 노트북용 무선통신 모뎀 '스파클' 2380개를 만들며 오래된 기억을 되살렸다. 6월의 첫 날. 팬택 김포공장에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제품의 마지막 출하가 무사히 끝났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려는 마음이 실렸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포장된 제품은 이제 역사가 됐다.

무엇인가를 남과 다르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과 그 자체로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보여줘서 가치를 인정 받았던 시대는 한참 전에 끝났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 그 자체가 감동과 가치 그 이상으로 매겨지는 시대다. 여기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진화 속에 품어 온 본능의 뿌리가 있다. 그 뿌리는 겸손 그리고 선(善)의 씨앗이 맞닿아 내려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이런 에너지의 파장 때문이지 싶다.

KT, 멤버십 혜택 어물쩍 축소

소비자 119

단말기 구입 시 포인트 15%→10%로 축소

<혜택변경>
■ 변경서비스 : 단말기 할인
■ 변경 내용 : (기존) 15%할인 ☞ (변경) 10% 할인(최대 5만원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올레멤버십 "제휴서비스 할인" 및 "단말기

올레멤버십은 고객님들께 최강 혜택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 더
감사합니다.

따라올 수 없는 최강 혜택! 올레멤버십

KT올레 멤버십 혜택 변경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가계통신비를 줄여준다고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KT에서 멤버십 혜택을 어물쩍 축소시켜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KT의 '올레멤버십'의 혜택이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용히 변경된 사실이 공지됐다. 통상 멤버십 혜택을 선전할 경우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왔지만 혜택을 줄이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알린 것이다. KT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비율이 적다는 것에 착안한 꼼수다.

변경된 혜택을 뜯어본 가입자들은 휴대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KT의 꼼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KT올레 멤버십 혜택 중 가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혜택은 '단말기 할인'서비스였다. 올레멤버십은 KT를 가입한 고객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매해 정기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에도 멤버십 포인트로 기계 값의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출고가가 85만8000원인 갤럭시S6(32GB)와 출고가가 92만4000원인 아이폰6(64GB)에 적용하면 각각 12만8700원, 13만8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은근슬쩍 혜택을 줄인 이후로 최대 5만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도 최대 10%로 축소했다.

앞으로는 KT 올레멤버십으로 위의 두 기종을 구매할 때 최대 5만원만 밖에 할인 받을 수 없다. 또 멤버십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기존 제휴사들도 대폭 줄였다. KFC, 베이비윙크, 포토큐브, 글로벌21 등 총 7곳을 제휴 종료했다.

이런 변경 사항에 KT의 가입자들은 불만이 거세다.

4년간 KT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최윤경(가명)씨는 4일 "멤버십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작은 서비스이지만 비싼 통신비를 대신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혜택 때문에 KT를 선택한 것"이라며 "멤버십도 KT라고 배우 유승룡씨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광고할때는 언제고 은근슬쩍 있는 혜택을 줄이는 기업의 모습이 도적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KT의 가입자 박성훈(가명)씨는 "휴대폰 출고가와 통신비가 사실상 대폭 인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레 통신사에서 혜택을 줄이는 꼼수로 비용을 절감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문경기자 hm0108@